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상회... 내년에도 금리인상 가능성
- Bloomberg: 전문가들, “내년 금리 상승세 계속...침체 가능성도”

[미국 금융]

- Bloomberg: 올해 개인 투자자들 주식 30% 손실... 3천5백억불
- Bloomberg: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 “내년에 글로벌 주식 상승”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중국 팬데믹 격리시설들의 향후 변화는?

[에너지/오일]

- Bloomberg: 푸틴, “러시아산 원유에 상한제... 그럼 생산 줄이겠다”
- WSJ: 엑손, 향후 5년 투자 지출안 유지키로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뉴스: "내년 미국 경제, 짧고 얇은 경기 침체 겪을 듯"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고용주들, 임금 줄이려 재택근무 수용한다
- WSJ: “걱정 마세요, 올해 X-mas 트리는 충분해요”
- WSJ: 오하이오 GM-LG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 노조 찬성한다
- WSJ: 코스트코, 매출 증가세 둔화...소비자 지출 준 탕
- The Economist: 슈퍼앱의 부상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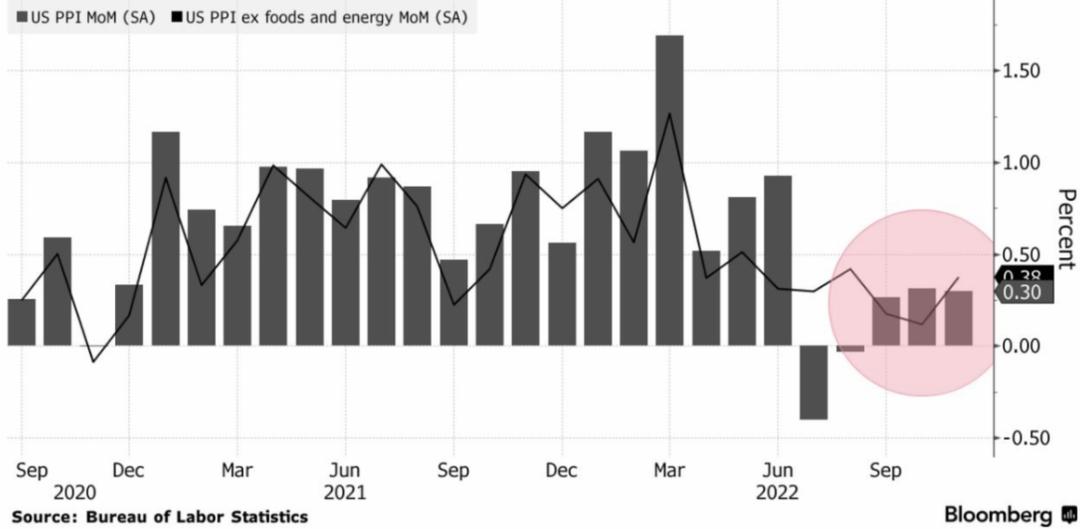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Top Estimates, Supporting Fed Hikes Into 2023

미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상회... 내년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

- 11월 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서비스 물가지수가 상승세를 주도했는데 식품 가격도 크게 올랐다.
- 내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수치라 할수 있다.
- 연방 노동부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11월에 0.3%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7.4% 올랐다.
- 한편 며칠 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높은 수치지만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urprise Strength US producer prices rose for third straight month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Expected to Keep Peak Rates for Longer, Dashing Hopes for 2023 Cuts

전문가들, “내년 금리 상승세 계속...침체 가능성도”

- 블룸버그 통신이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 내내 계속 고금리 정책을 시행, 월가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금리는 0,5%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 연준 FOMC의 중간치 예상은 내년에 정책 금리가 4.9%로 보여 지난달의 4.6%보다 오른 수치를 전망했다.
- 이같은 연준의 매파적 입장을 투자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내년도 금리가 고공 행진을 계속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금리가 0.5% 떨어질 것이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Retail Traders Lose \$350 Billion in Brutal Year for Taking Risks

올해 개인 투자자들 주식 30% 손실... 3천5백억불

- 이같은 대규모 손실은 리스크한 주식과 테슬라 같은 예전의 고수익 주식의 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 조사 업체 Vanda Research에 따르면 올해 적극적인 주식 투자에 나선 아마추어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30%로 나타났다. 반면에 S&P 500 지수 하락은 17%.
- 팬데믹 이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영향력이 커졌으나 올해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주식 투자 점유율도 지난해 초 이래 떨어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orld's Top Money Managers See Double-Digit Stock Gains in 2023

최고의 펀드 매니저들, “내년에 글로벌 주식 상승”

- 블룸버그가 비공식적으로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134명의 펀드 매니저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71%는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19%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승세라도 답변한 응답중에 평균은 10% 수익률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
- 그러나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 연초에는 주식 시장이 아주 낮고 하반기에 들어가서 올라갈 것으로 많은 응답자는 발표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What next for China's covid-industrial complex?

중국 팬데믹 격리시설들의 변화는?

- 그동안에 중국은 감염자 뿐만 아니라, 접촉자 심지어 접촉자의 접촉자까지도 격리했었다. 감염 건수 한 건만 발생해도 전체 건물 거주자들은 격리 시설로 이동되었다.
- 이로 인해 테스트 검사 기구 업체들은 큰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고 있다. 중국이 코비드 제한 조치가 대규모 데모로 완화된 데 따른 것. 불필요한 테스트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또한 격리 시설도 사용된 건물들은 시정부들은 투자자를 유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커뮤니티 센터로 바뀌거나 화물 창고로 탈바꿈하고 있다. 향후에는 노인 주택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한편 코로나 테스트 기구 제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부 건강 관리 회사들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호흡기 제조사나, 팬데믹 등 각종 질환 사망자들 때문에 장례업 회사도 인기를 끌고 있다.

The Economist 기사

[에너지/오일]

Bloomberg: Russia May Cut Oil Output in Response to G-7 Price Cap, Putin Says**푸틴, “러시아산 원유에 상한제... 그럼 생산 줄이겠다”**

- G-7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에 상한선을 부과하자 러시아는 이같은 대 러시아 제재 조치에 동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원유를 팔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 푸틴 대통령은 향후 수일 후에 이같은 입장을 대통령령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그는 “우리는 제재 동참 국가들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며 “필요하다면 우리는 가능한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Exxon Holds Firm on Its Five-Year Spending Outlook**엑손, 향후 5년 투자 지출안 유지키로**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늘리라고 관련 미국 업체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 그러나 Exxon Mobil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생하기 전에 결정한 향후 5개년 투자 지출방안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
- 이 회사와 다른 회사들은 원유가 상승으로 올해 분기별 수익이 컸다. 이에 따라 바이든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일 회사들이 그들의 수익을 가솔린과 디젤 생산 목적으로 정제 능력과 시설을 늘리는데 사용토록 촉구해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공하라고 촉구해왔다.

WSJ 기사

[한국 경제지 기사들]

- 연합: "내년 미국 경제, 짧고 얇은 경기 침체 겪을 듯"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Some Bosses Embrace Work From Home to Keep Wages Down

고용주들, 임금 줄이려 재택근무 수용한다

-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일부 기업들과 달리, 많은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재택근무를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임금이 낮은 지역의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로자들의 임금이 치솟고 지역 간 임금 격차가 극심한 시기에, 기업은 임금이 낮은 소도시 노동시장을 타겟으로 한 원격 고용으로 임금에 드는 돈을 약 15%까지 절약할 수 있다. 게다가 새로운 인재를 확보해 다양성을 키울 수도 있다.
- 전국적으로 미국의 임금은 11월까지 1년간 약 5% 상승했는데, 이는 역사적인 높은 수치. 연구에 따르면 원격 근무 추세가 2년간 임금 상승률을 약 2%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대가로 더 낮은 임금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WSJ: Ignore the Scare Stories: Supplies of Christmas Trees Meet Demand

“걱정 마세요, 올해 X-mas 트리는 충분해요”

-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소비자들을 겁주는 트리 품귀현상은 올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
- 미국 농업 인구 조사에 따르면 2017년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재배하는 농장의 수는 2012년보다 3% 감소했고, 총 면적은 4% 감소했다. 하지만 이것이 품귀 현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충분한 수의 트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인공 나무와 캐나다 수입 트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방 농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결코 트리가 부족했던 적 없다” 라고 밝혔다.

WSJ 기사

WSJ: Workers at GM-LG Battery Plant in Ohio Vote to Unionize

오하이오 GM-LG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 노조 찬성한다

- 지난 8월 말 가동을 시작, 약 900명의 직원을 보유한 GM-LG 공동 소유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의 근로자들이 710대 16으로 미 자동차 노조(UAW) 가입에 찬성했다.
- 두 회사가 향후 12개 이상의 배터리 공장을 열 계획인데, UAW가 잠재적으로 2만 명 이상의 노조 회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EV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필요한 부품이 적어 조립 노동력도 적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려 할 수록 기존 공장 노동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UAW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UAW는 지난 10년간 외국 자동차 제조사 운영 생산 시설 직원들의 노조화 활동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UAW는 이제 오하이오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신해 임금, 혜택, 작업 일정 등을 협상하게 된다. 현재 이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15-22달러로, 주요 자동차 회사 근로자들의 30달러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WSJ 기사

WSJ: Costco Sales Growth Cools as Consumers Shift Discretionary Spending

코스트코, 매출 증가세 둔화...소비자 지출 준 탕

- 코스트코는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장 매출이 7.1%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이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지난해의 대규모 성장과 소비자의 고가 재량 품목에 대한 지출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몇 달 동안 코스트코, 월마트를 포함한 대형 소매업체들은 소비자 지출의 변화에 주목해왔다. 소비자들은 식료품과 필수품에 대한 지출을 우선 시했고, 가구 등의 임의재 지출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 한편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량 판매를 하는 코스트코는 다른 대형 경쟁사들보다 고소득 쇼핑객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더 많은 고소득 쇼핑객들이 가성비를 찾아 코스트코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 코스트코의 지난 3개월 매출은 554억 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504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회비 수익은 전년 동기 9억 4천 6백만 달러에서 현재 10억 달러로 증가했다. 순이익은 전년도 13억 달러에서 올해 14억 달러로 늘었다.

WSJ 기사

The Economist: The rise of the super-app 슈퍼앱의 부상

- 가능한 많은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앱 안에 넣으려는 “super-app”에 대한 야망은 수년간 미국 기업들에서 인기를 끌었다. 월마트는 자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페이팔과 우버, 핀터레스트도 손을 잡고 슈퍼앱 개발을 시도했으나 계획이 유출되고 주가가 급락하며 무산되었다.
- 슈퍼앱이 자리를 잡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앱 스토어이다. 미국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애플페이에 연결되는 애플생태계는 미국 내에서 “슈퍼앱”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에 맞설 더 큰 플랫폼이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 또 다른 장애물은 규제당국과 소비자, 개발자로부터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트위터 기반 슈퍼앱 역시 협력할 기업과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he Economist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11월 생산자물가 7.4%↑...시장 예상보다 더 올라

미국의 도매 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7.4% 각각 올랐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월(8.1%)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어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석 달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11월 PPI 상승률은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7.2%, 전월 대비 0.2%)를 모두 상회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